

## 2020학년도 제 1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15:00~17: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유신재 (위원장)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정민재 (학부 추천위원)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배석한 기획예산팀 간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하고, 등록금 상한선 (1.95%)을 확인하고, 등록금 및 교육비 추이와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에 대해 설명함.

###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 정민재(학부 추천위원)

2019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중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이 정보공시 상에 공시된 금액(소득액, 부담률)에 비해 발표 자료에 축소된 수치로 나타나는 이유는.

#### 이근화(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법인에 확인 결과 정보공시 상 소득액(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계산 시 비용이 과다지출된 것처럼 잘못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법인 측에서 대학알리미에 정보공시 수정을 요청할 예정임. 실질적으로는 예년 수준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 시 등급 인상으로 인해 약 16억 원 정도 학교 수입이 증가된다는 내용이 예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있었는데 여기서 '등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편입학 모집 가능 학생 수를 결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등급을 말하는 것임. 이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에 따른 지표 상승으로 등급이 상승하여 편입학생을 더 모집하고 등록금 수입을 더 확보하게 되었음.

**유신재(위원장)**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지확보율 등 몇 가지 지표가 증가하여 현재보다 3배의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현재 보고하는 각종 지표들을 볼 때 학교가 나빠진다는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움. 각종 지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학교의 19회계 수지 지표를 보아도 연구학생경비, 보수 등은 후생적 차원인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 예산을 줄이는 것이 성과라 보기는 어려움.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연구학생경비 중 대학원 장학금이 감소된 이유와 교직원 보수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교직원 보수의 경우 퇴직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교원 총원 등으로 증가되어야 하지 않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대학원 장학금은 대학원 모집 인원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적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도 연동되어 동일한 비율로 감소되었음. 교직원 보수의 경우 내년에는 전임교원을 15명 정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1차적인 통계 분석보다는 예를 들어 동문회 기부금이 타 대학에 비해 적기 때문에 동문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분석 등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통계나 수입지출 보고 사항으로는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어려워 보임. 예산을 줄인다는 내용보다도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얼마를 더 썼다는 논의도 필요해 보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추후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등록금 논의가 먼저라고 생각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심층적으로 분석된 후에 등록금 인상, 인하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봄. 등록금 수입, 장학금 등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의 결과보다는 더 나아간 논의가 필요하다 봄.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등록금 및 예산 관련 논의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이월금의 경우 우리 대학이 제일 이월금 비율이 낮은 것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월금 비율이 낮은 것이 경영을 잘못 해서 낮게 나오는 지표일 수도 있음.

**유신재(위원장)**

이월금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최대한 적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 수립 상 딱딱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원하시는 차년도 예산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심의는 예산등심위에서 다룰 예정이며 회의 전에도 사전 열람이 가능함. 결산 심의의 경우에도 4월에 확인 가능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대학들도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올해에는 총장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부에서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

**유신재(위원장)**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외부에서도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총장협의회, 처장협의회 등 타 학교와의 협의체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동결 기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임. 어려운 환경이지만 본부에서도 지난 총장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 의존율이 50%대에서 60%대로 올라가는 등 우리 대학은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동문회에서도 이를 안타깝게 보고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학교 역량 강화와 학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얼마정도 예산 투입을 위해 얼마정도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등의 학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이 답답하게 여겨짐.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등록금 의존율이 계속 올라가는 점에는 ACE, CORE, CK-II 사업 등 국고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국고사업비 금액이 절반 이상 축소된 점도 존재함. 타 대학의 경우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고사업을 하던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비 감소가 크게 작용하였음.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글로벌한국학 전공 등록금 인하의 경우 인하 반대에 대한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려 함.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경우 인상된 등록금 차이만큼 예산이 더 배정되어 학과 행사를 자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등록금 인하 시 예산 감소로 학과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어 등록금 심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보고 자료에서 19회계 법인전입금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전입금의 경우 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예수회 장학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 중 사도직 기금이란 것이 있는데 원금을 유지하고 이자를 사용하는 원칙이 있었으나, 법인전입금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3년 간 24억 원을 전입금을 지원하고 원금이 모두 소진되었음. 이에 다른 기금으로 예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금액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입금 예산을 줄이게 되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한편, 약 40명 정도의 편입생 증가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받았기에 예수회 공동체 장학금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투입한 상태임. 현재 약속된 금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했지만, 법인에서 전입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람.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대학원의 상황을 보았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을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아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대학원 장학금 감소의 주된 이유가 학생 수 감소에 있다고 하는데 대학원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전종호(학생문화처장)**

법인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예수회 기금 및 장학금 등을 사용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수회 장학금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지만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임. 그 대신, 학교 건물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린다는 것, 예수회 수익사업을 통해서 다른 경로로 학교에 기여할 방법을 법인에서도 찾고 있는 상황임. 올해 법정부담금 감소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법정부담금 예산이 감소된 것이고, 일부는 학교로 전출하는 장학금 중 기존에는 법인을 통해 전출하다가 예수회에서 바로 학교로 전출하도록 방법을 바꾼 장학금이 있어 일부 감소된 것처럼 여겨

지나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동일함.

#### **유신재(위원장)**

법정부담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3주기 구조개혁평가 시에도 반영되는 항목임. 국가지원금이 감소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감소는 우려되는 항목임. 법인 및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기존의 토마스모어관 건립, 철우만례사 인성교육원 건립 지원 등 법인에서도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 왔음. 그래서 법인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일부 사용하는 등 법인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에 많이 전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앞으로도 전출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법인의 돈을 들여서라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으나, 최근 교육부에서 전출 재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인에서도 전출금 마련 방식에 고민을 갖고 있음.

법인의 수익용 건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최근에는 법인에서 기부자들에게 토지를 기부받아 수익용 개발을 통해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예수회는 종교적인 면도 있고 신부님들도 계시니 또 다른 적절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타 학교에 비해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학교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글로벌한국학 전공 등록금 인하 안건의 경우, 학생들이 우려하는 행사 예산 지원금 지원에 대한 감소 없이 등록금만 인하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함.

####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학생 예산이 감소된다면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등록금은 동결시킬 것을 제안드림.

####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통합 당시 해당 학부 간담회에서 총장님께서 전공별로 차등되어 있는 등록금액의 조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에 근거하여 제시된 안건이었음. 다만, 등록금 인하와 연동하여 특별히 지원금을 인하하거나 하려는 예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

#### **전종호(학생문화처장)**

외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자는 대학의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음.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국가 장학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장두용(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원 장학금 감소분을 고려하면 최근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가장 큰 대학원생 수 감소는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임.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대학의 MBA과정이 매우 왕성했으나, 최근에는 타 학교도 그렇고 MBA 과정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최근에는 인근 경쟁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고, 학생들이 대학원보다는 취업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타 대 대학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학생 감소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

**장두용(대학원 총학생회장)**

전반적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이 감소했지만, 일반대학원생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부 예산에 대학원생 행사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및 논문게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직접적으로 대학원 등록금과 연동되는 예산은 대학원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은 학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대학원생 분들의 경우 대학원 예산만 보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학부 예산에서 따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이근화(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추가로, 올해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작년 까지의 국고사업의 경우, 학부생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CORE사업에서 진행하던 스포라십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생들에게 국고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 1차년도에 대학원 장학금, 학술논문 게재 지원 장학금 등을 일정 비율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현재 인건비의 경우 지속적인 임금 동결, 고액 연봉 교직원의 정년퇴직 및 신입 교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었음. 그러나 내년에는 각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 유지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라도 올해에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심위 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전임교원 확보 인건비 등 여러 논의 시에 예결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보고자료에 추가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음.

**유신재(위원장)**

예산의 경우 아직 편성 중에 있고, 결산의 경우 4월이 되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아쉽게 생각함. 앞으로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음.

**유신재(위원장)**

안전 중 신학대학원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이나,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등록금 조정의 건 모두 본부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기존 등록금 총액보다 소폭 상승한 것은, 기존에 해외에 나가는 과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걷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원생의 경우에 추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었고,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음. 그래서 이번에 학제를 개편하면서 해외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등록금액의 소폭 상승분으로 이를 충당하여 회사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님 분들도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19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대학 재정회계지표에서 법정부담금 비율이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근화(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대학재정회계지표는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년도 지표는 1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의 법인전입금 감소분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 내년 4월 결산 이후 20년도 지표 공시 시에는 올해의 법인전입금 감소분이 반영되어 현재보다 법인전입금 지표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다만, 학교 운영수입이 지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년도 수입 결산에 따라서 지표는 변동이 될 수 있음.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안전 중 글로벌한국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하여 학생 행사비 등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내 예산 편성 기준을 검토하였음. 학부 예산 편성 시에는 학부 인원수가 가장 먼저 고려되며, 등록금액 자체가 큰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음. 예산 편성 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담당자와 논의하여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행사비, 실습비 예산을 동결하고 다른 학부 운영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한다면 학생들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또한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지식융합미디어학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우려하는 실습비 및 행사비 감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다산관 화장실이나 AS관 엘리베이터 교체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학생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시설물 개보수 요청사항을 이행해나가고 있음.

**유신재(위원장)**

앞으로도 매년 예산 편성 시 교비 및 국고 차년도 예산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추가 편성해 나갈 계획임. 등록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손쉽게 등록금 인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기 보다는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예산은 교수 및 대학원생 지원 등 학교 발전을 위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부가 계속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대학원 관련 시설의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원우회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대는 경우도 있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본부에서는 해당 대학원의 시설 개보수의 경우 발전기금을 쓰도록 요청드리고 있으며 발전기금이 부족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유신재(위원장)**

주로 학부 위주로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부 실습실의 경우 내년에도 수학과 실습실, 커뮤니케이션센터 실습실을 확장, 개보수하는 환경개선공사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임. 다만, 다산관 계단강의실의 경우 바닥을 모두 철거하고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상 여력이 없어 추후 예산 확보 시 집행할 예정임.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글로벌한국학 전공 등록금 인하 시 학과 행사 및 실습 관련 예산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금 인하에 동의함.

**유신재(위원장)**

등록금 안전에 대해 모든 위원이 찬성한다면 등록금 결정을 위한 회의는 1차 회의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예산 심의를 위한 등심위로 넘어가고자 함.



### 전종호(학생문화처장)

안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법인전입금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법인전입금 비율이 현재에도 주요 경쟁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예수회에서 지원하고 이를 법인에서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계산이 있었을텐데 전입금을 위한 기금이 소진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추가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보고나 추가적인 기획안이 다음 회의 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예전에 남양주 관련하여 학생들이 법인전입금을 요청했을 때, 유신재 신부님이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5년간 8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하지만 예수회에서는 3년간 8억 원씩 기금을 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이사회에서는 예수회와 합의되는 않은 5년간 8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임.

### 유신재(위원장)

당시 법인 이도행 회계사가 법인전입금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전임 상임이사를 대신해서 발표한 것임. 당시 5년간 8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들었고, 예수회로부터 추가 기부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고 발표한 것이며, 이 자료는 제가 첨가한 것은 하나도 없음. 2016년 12월 이사회에서 보고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예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추후 3년 8억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음.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에도 이 법인전입금 계획을 법인에서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법인 책무성 지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됨. 총장님께서도 지난 이사회에서 이러한 우려와 함께 법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임.

###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한 총장님의 우려를 이사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인과 이사회에 현 상황과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 유신재(위원장)

법인과 이사회에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이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법인의 대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래야만 학생들과 동문들도 저희를 믿고 학교 발전을 위해 따르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종호(학생문화처장)

본인도 학생문화처장으로서 학내 언론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다음 회의까지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과 개선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이러한 등심위 위원들의 우려 사항을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도 법인전입금 추가납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음.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저는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학생들에게도 공유해도 좋은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에서는 일단 예수회 자체 기금에서 24억 원 지원하였고, 편입학생 모집 정원을 늘리기 위해 예수회 장학기금 10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에 투자하여 법인에서는 34억 원을 노력하여 총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액에서 6억 원이 부족한 상황임. 추가적으로 법인전입금 부담을 위해 기금 운용 및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여기까지는 학생들에게 공유하여도 됨. 총장님께서도 이사회에서 법인의 책무성에 대해 언급하셨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정민재(학부 추천위원)**

예산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전에 질의사항을 위해 2차로 위원회를 열어주실 수 있는지와 예산 관련 자료는 언제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예산 등록금심의위원회 당일 오전에 예산 자료 열람이 가능함. 예산 작업 일정이 앞당겨져 빠듯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열람하는 것은 어려움.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지.

**정민재(학부 추천위원)**

곧자가 국제학사 운영 주체인 유한회사의 채무에 대해 학교 법인이 책무가 있는지와 비등록금회계 중 선교비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수입, 지출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려 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곧자가 국제학사 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예산 관련 자료는 열람 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정민재(학부 추천위원)**

그렇다면 열람으로 대체하고 추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쪽에 동의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예결산 관련해서는 결산 심의 때에도 질의사항을 열람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결정사항

#### (1) 등록금 책정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학부 입학금 16% 인하 및 수업료 동결
- 학부 및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수업료 동결
- 학부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동결

#### (2) 심의 안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학생행사, 실험실습 관련 예산 유지를 전제로  
글로벌한국학 전공의 등록금을 인문계열 등록금으로 인하 결정  
(3,831,000원 -> 3,607,000원)
- 4학기제에서 5학기제로 전환되는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  
학 전공의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인하 결정  
(6,518,000원 -> 5,215,000원, 적용 시기 2020-2학기부터)
- 5학기제에서 4학기제로 전환되는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GSM) 박사과정  
의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인상 결정  
(9,350,000원 -> 12,000,000원, 적용 시기 2020-1학기부터)

### 4. 기타 사항

-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과 개선 계획을 차기 회의에 제시  
해줄 것을 위원들이 요청하였고, 법인 위원은 우려 사항에 대해 법인과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함.

### 5. 차기 회의 일정

- 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2020년 1월 17일(금) 15:00~17:00

2019. 01. 03.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유신재 기획처장




(교직원, 법인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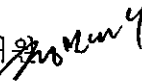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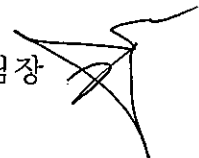
정민재

학부 추천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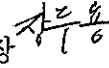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